

올해 위령 성월에 특별히 생각나는 분

제 책상 위에는 헌 우표들이 들어 있는 누런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봉투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헌 우표를 모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던 수녀님이 지난 추석 다음날 하느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표 모으는 일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수녀님이 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수녀님은 원래 의사였고 수녀원에서 하는 의원을 운영하면서 농촌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독일에서 연수 과정을 밟던 중 당신이 신부전증을 앓고 있음을 알게 된 수녀님은, 하루아침에 병자를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병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수녀님은 꼬박꼬박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혈액투석을 하였고, 병원에 가지 않는 날에는 수녀원 현관에서 전화를 받거나 문을 열어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골다공증 등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 더 이상 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녀님이 마지막까지도 계속 할 수 있었던 일은 헌 우표를 모아 자선단체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외국에서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는 사람답지 않게, 언제나 밝고 기쁘게 사셨고, 그래서 이웃에 사는 교포들이나 유학생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수녀님을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10여 년 전, 수녀님이 사시던 수녀원에서 베풀어 준 수녀님의 환갑잔치는 그분의 매력적인 인품을 단적으로 보여 준 행사였습니다. 함께 사는 수녀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 여러 지역에서 유학 또는 교포사목 중인 많은 사제와 유학생 그리고 교포 신자들이 찾아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수녀님을 뵈 때마다 '수녀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힘이 나와, 이렇게 기쁘고 밝게 사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하였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고향에 갈 수 없었고, 비록 친자매처럼 돌보아 주는 동료 수녀님들이 있다지만 건강한 사람들도 견디기 어려운 이국생활의 고독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수녀님이 보여 준 따뜻한 마음씀씀이를 보면 분명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힘의 도움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수녀님은 육체적으로는 이틀에 한 번씩 기계와 약품을 통해 피를 깨끗하게 하고 기력을 회복해야 했지만, 영적으로는 성체성사의 은총으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신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나 위령 성월에 특별히 기억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령 성월을 맞아 가깝게 지내며 아끼고 사랑했던 이들뿐 아니라, 상처를 주고 미워했던 이들, 그리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며 외롭게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우리 모두 정성껏 청해야겠습니다. 🙏

본지 편집인 김명국